

사마리아 오경 신명기 32장 주요 이형에 대한 본문 비평적 연구

마소라 본문·쿰란 사본·칠십인역과의 비교를 통한 고대성 평가

박성현(우리말씀연구소)

1. 들어가는 말

본문 비평의 장에서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만큼이나 신학적 편견과 학문적 오류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본문도 드물 것이다.¹

- 1 논의의 진행하기에 앞서 사마리아 오경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어 정리가 필수적이다. 먼저 사마리아 거주민과 사마리아인을 가리키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신중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족명(ethnicon)으로서 '사마리아인들'(**שַׁמְרִיטִי**, 하쇼브로님)이라는 표현은 앗수르 유배 이전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북이스라엘 거주민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지리적 성격을 띠는 의미로만 사용된다(LXX 왕하 18:11). 영어로 'Samaritan(사마리아 거주민)'이라 옮기는 이 호칭은 신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메리나(Samerina/Samaria)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지리적·주민적 개념을 포괄한다. 반면 '사마리탄(Samaritan)'이라는 표현은 그리스 산 제의, 모세 유일 예언자론, 경전으로서의 사마리아 오경, 그리고 유일신 신앙 등을 받아들이는 종파적 정체성을 함유한 용어이다. 크노퍼스(G. N. Knoppers)는 신바빌로니아·페르시아·초기 헬레니즘 시기의 사마리아 거주민에게 후대 로마 시대에 이르러 뚜렷이 굳어진 '사마리탄'이라는 호칭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대체로 시대착오적 오류라고 보고 이 오류를 피하기 위해 '야훼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 거주민(Yahwistic Samarit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는 야훼 숭배가 사마리아에 뒤늦게 도래했다는 잘못된 가정을 피하는 동시에, 해당 집단 스스로가 꺼

www.kci.go.kr

이 본문을 남긴 사마리아 공동체는 초기 유대교뿐 아니라,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 Martyr), 이레네우스(Irenaeus)와 같은 기독교 교부들에게도 이단적 종파(sect)로 규정되었고, 그들의 경전은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형시킨 후대 전승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았다.² 그러나 사마리아 공동체의 정체성은 히브리 성경의 삼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오직 모세의 저작인 오경만을 유일한 경전으로 수용하는 엄격한 율법주의적 태도에서 비롯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지리적 사마리아인으로 여기지 않고, 모세의 전승과 토라를 보존하는 이들이라는 관점에서 ‘쇼므림’(שומרים)으로 일컬으며 자신들만이 온전한 모세 전승과 토라의 원형을 보존한 정통성 있는 집단이라 생각했다.³ 이

리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후대에 전한 사마리아 공동체는 후대 랍비 유대교에서 점차 이방인에 준하는 집단으로 규정되어 갔고 후기 탄나임과 아모라임 시기를 거치며 타락한 또는 비유대적 집단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또한 그들의 오경 본문 역시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을 변형시킨 후대의 종파적 전승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크노퍼스는 쿨란문서 등의 증거를 통해, 사마리아 오경의 독특한 종파적 읽기(sectarian readings)는 사실 기원전 2-1세기 마카베오 시대 무렵에 비로소 추가된 얇은 층이며, 그 기반이 된 본문 유형(pre-Samaritan)은 본래 유대와 사마리아가 함께 공유한 공동 유산이었음을 논증했다. Gary N. Knoppers, *Jews and Samaritans: The Origins and History of Their Early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4-17, 177-189.

- 2 유대 전통에서 랍비들이 사마리아 공동체를 비난한 역사적 사실은 James D. Purvis,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Origin of the Samaritan Sect* (HSM 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4-7; Ingrid Hjelm, *The Samaritans and Early Judaism: A Literary Analysis* (JSOTSup 30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04-115을 참조하라. 더불어 퍼비스는 사마리아 오경 형태의 본문이 주전 1세기 하스모니아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세 본문 전통(원-사마리아 본문, 알렉산드리아의 원-칠십인역, 원-마소라 본문) 가운데 하나였으나, 주후 1세기 후반 랍비들이 하나의 특정 본문 전통(원-마소라 본문)을 선택하고 다른 경쟁본들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오경 본문 전통이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Purvis, 윗글, 69, 78-87; Robert T. Anderson/Terry Giles, *The Samaritan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Its Origin, History, and Significance for Biblical Studies* (RBS 72;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2), 28-41; Hjelm, 윗글 (2000), 76-103을 참조하라.
- 3 Purvis, 윗글, 16-32; Anderson/Giles, 윗글, 1-17; Hjelm, 윗글 (2000), 11-13; Magnar Kartveit, *The Origin of the Samaritans* (VTSup 128; Leiden/Boston: Brill, 2009), 3-25; Ingrid Hjelm, "Samaritans: History and Tradition in Relationship to Jews, Christians and

러한 사마리아 공동체의 인식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사마리아 오경의 자음 형태는 기원전 마지막 수 세기 동안 팔레스타인에 유통되던 대중적 본문 전통(pre-Samaritan)에 기반하며, 완전 서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⁴ 더불어 구전으로 전승된 사마리아의 낭독 전통은 제2성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언어적 특징과 오래된 읽기를 언어학적으로 보존하고 있어서 본문 비평의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된다.⁵ 하지만 이러한 본문의 고대적 특성과 역동적인 본문 전통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오경 초기 연구는 서구의 비평계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⁶

사마리아 오경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게제니우스(Wilhelm Gesenius)였다. 게제니우스는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사마리아 오경의 이형 특성을 문법적 평이화, 조화적 확장, 종파적 수정으로 체계화했다.⁷ 그러나 게제니우스가 사용한 자료가 중세 필사본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제2성전기 층과 후기 필사 층을 제대로 구별하지는 못했다.⁸

Muslims”, József Zsengellér (ed.), *Samaria, Samaritans, Samaritans: Studies on Bible, History and Linguistics* (Studia Judaica 66; Studia Samaritana 6; Berlin/Boston: De Gruyter, 2011), 173-175.

- 4 보통 완전 서법은 문맥의 오독을 방지하거나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으며 쿰란에서 발견된 필사본들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Emanuel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ed., rev. and en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79-90.
- 5 Stefan Schorch, “The Significance of the Samaritan Oral Tradition for the Textual History of the Pentateuch”, Vittorio Morabito 외 (eds.), *Samaritan Researches V* (Studies in Judaica 10; Sydney: Mandelbaum Publishing, 2000), 1.05, 1.16.
- 6 사마리아 오경 본문은 1616년에 피에트로 델라 발레(Pietro Della Valle)에 의하여 최초로 유럽 사회에 알려졌다. 이 본문이 유럽 사회에 던진 여파와 종교개혁 시기의 필사본 논쟁과 관련해서는 Michaël Langlois (ed.),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Dead Sea Scrolls* (CBET 94; Leuven: Peeters, 2019), 3-5; Kartveit, 윗글 (2009), 259-263; Purvis, 윗글, 1-8을 참조하라.
- 7 Wilhelm Gesenius, *De Pentateuchi Samaritani Origine, Indole et Auctoritate: Commentatio Philologico-Critica* (Hala: Libreria Rengeriana, 1815), 26-64.
- 8 게제니우스의 결론의 결정적 한계는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의 필사본이 13세기 이후의 중세 필사본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더욱이 그가 중세 필사본에 누적된 본문들의 층

www.kci.go.kr

게제니우스 이후 150년 동안 변하지 않던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는 쿨란에서 필사본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다.⁹ 특별히 스케한(Patrick Skehan)이 쿨란 제4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사본 가운데 출애굽기 필사본(4QpaleoExod^m)을 분석하면서 사마리아 오경 연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사마리아 공동체의 종교적 특성을 띠지는 않지만, 사마리아 오경과 일치하는 확장적 본문이 쿨란 필사본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¹⁰ 스케한은 이 증거를 통하여 사마리아 오경 안에 나타나는 본문의 형태 가운데 일부는 제2성전기의 유대 사회 내에서 널리 읽히던 대중적인 본문 ‘전-사마리아 본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¹¹ 이후 카르트베이트

위를 제2성전기의 분파 형성 시기에 고의적인 본문 개작의 증거로만 여겨 선입견을 안고 연구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Anderson/Giles, 윗글, 102-105; Magnar Kartveit, “Josephus on the Samaritans: His Tendenz and Purpose”, József Zsengellér (ed.), *Samaria, Samaritans, Samaritans: Studies on Bible, History and Linguistics* (Studia Judaica 66; Studia Samaritana 6; Berlin/Boston: De Gruyter, 2011), 110-112.

9 Tov, 윗글 (2012), 90-95.

10 Patrick W. Skehan, “Exodus in the Samaritan Recension from Qumra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4 (1955), 182-187. 토브는 4QpaleoExod^m을 “가장 잘 보존된 전-사마리아 본문”으로 제시하며, 이 두루마리가 사마리아 오경 편집 확장을 공유하면서도 사마리아 제10계명(그리십)은 빠져 있어서 전-사마리아 본문이라 평가한다. Tov, 윗글 (2012), 90-91.

11 여기서 학계에서 사마리아 오경 본문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두 용어인 원-사마리아(Proto-Samaritan)와 전-사마리아(Pre-Samaritan)를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쿨란에서 출토되었던 4QpaleoExod^m·4QNum^b 등의 비분파적 확장 본문군은 종래 토브와 크로스(Frank Moore Cross), 샌더슨(Judith E. Sanderson)을 중심으로 ‘원-사마리아(Proto-Samaritan)’ 본문으로 불려 왔다. 처음에 이 본문들을 원-사마리아 본문으로 불렀던 토브도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용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쿨란 사본들은 사마리아적이지도 않고 분파적이지도 않은데, 마치 이 용어가 사마리아와 직접 연결된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 그 이유다. 토브는 이를 원-테오도시안(Proto-Theodotion), 원-루키안(Proto-Lucian)처럼 관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후에는 해당 사본들이 사마리아적이기도 분파적이기도 않다는 점에서 그 명칭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였다(That name may be somewhat misleading)을 인정하였다. 야스트람(Nathan Jastram) 또한 원-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관용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따옴표를 덧붙여 ‘Proto-Samaritan’으로 지칭한다. 이후 토브는 ‘아직 사마리아적이지 않음’을 해당 필사본에서 더 분명히 드러내고자 같은 대상을 ‘전(前)-사마리아(pre-Samaritan)’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도 토브의 이러한 인식을 함께하

www.kci.go.kr

(Magnar Kartveit)와 퍼비스(James D. Purvis)가 입증했듯이, 사마리아 오경은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 그리심산이 파괴되는 상황 가운데서 사마리아인들이 기존에 유통되던 본문 가운데 하나를 자신들의 정경 대본으로 채택하고 그 위에 최소한의 신학적 색채를 가미한 본문이다.¹²

이처럼 유대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여러 사본이 제2성전기라는 동일한 시간 속에 공존했다는 본문 증거는 당시의 성서 본문이 단 하나의 정통 본문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사마리아 오경 또한 당대 팔레스타인 필사 관습 가운데 하나였다는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었다. 이러한 연구 토양 위에서 올리히(Eugene Ulrich)는 ‘본문의 복수 판본 공존 모델’을 더 합리적으로 제시했고 잔(Molly M. Zahn)은 과거 서기관들이 본문의 기계적 전승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해석적 수정’(interpretive alteration)을 가했음을 논증했다.¹³ 더 나아가 사마리아 오경을 향한 학

며 ‘전-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논증들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Emanuel Tov, “Proto-Samaritan Texts and the Samaritan Pentateuch”, Allan D. Crown (ed.), *The Samaritans* (Tübingen: Mohr Siebeck, 1989), 397-407; Nathan Jastram, “A Comparison of Two ‘Proto-Samaritan’ Texts from Qumran: 4QpaleoExod^m and 4QNum^b”, *Dead Sea Discoveries* 5/3 (1998), 264-289; Tov, 윗글 (2012), 90-91을 보라.

12 Purvis, 윗글, 69-87; Kartveit, 윗글 (2009), 259-311.

13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 칠십인역(LXX)이 각각 고유의 가치를 지닌 ‘판본들(editions)’이며, 이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하나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공존했던 본문들이라 보는 올리히의 견해는 Stefan Schorch, “The Samaritan Version of Deuteronomy and the Origin of Deuteronomy”, József Zsengellér (ed.), *Samaria, Samaritans, Samaritans: Studies on Bible, History and Linguistics* (Studia Judaica 66; Studia Samaritana 6; Berlin/Boston: De Gruyter, 2011), 23-37, 특히 31-34; Eugene C. Ulrich,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Origins of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9), 384-385을 참조하라. 더불어 고대 서기관들은 본문을 보존하는 동시에, 그 본문이 새로운 시대와 공동체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적 수정’을 가했는데 사마리아 오경 역시 당시 서기관들의 신학적·문학적 작업이 기록된 ‘본문 다시 쓰기의 장르’로 간주해야 한다는 잔의 주장은 Molly M. Zahn, *Genres of Rewriting in Second Temple Judaism: Scribal Composition and Transmi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1-7을 참조하라.

자들의 관심은 1980년대 조직된 사마리아 연구학회(Société d'Études Samaritaines, SÉS)로 이어졌고 2021년에는 쇼르히(Stefan Schorch)의 『사마리아 오경 대비평편집본(Critical Editio Maior)』이 출간되면서 현재는 하스모니아 시대의 자음 층위의 역사적 고대성을 실증하고 사마리아 고유의 구전 전승에 따른 모음 체계를 확립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¹⁴

이처럼 제2성전기 성서 본문, 특히 사마리아 오경의 독자성과 그 배후에 놓인 전-사마리아 본문에 대한 복원 작업이 세계 학계의 지각 변동과 주석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현재 국내 구약학계에서 사마리아 오경 본문에 대한 비평 연구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을 넘어 무관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비록 최근에 이르러 사마리아 오경의 음운론적·문법적 특징을 연구한 논문이 출간되긴 했으나, 이는 현대 세계 학계가 거둔 최신 비평 성과들을 제대로 추적하고 수용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¹⁵ 더욱이 사마리아 오경을 마소라 본문, 칠십인역, 콤란 사본과 본격적으로 교차 비교하여 그 본문적 고대성을 검토한 국내 연구는 아직도 매우 제한적이다.¹⁶ 따라서 세계 학계의 역동적인 본문 비평 및 전승사 논의 지형과 국내 연구의 한계를 함께 인

14 Stefan Schorch (ed.), *The Samaritan Pentateuch: A Critical Editio Maior, Volume 1: Genesis* (Berlin/Boston: De Gruyter, 2021), lv*-lviii**.

15 최현준은 사마리아 전통에는 급단 모음인 ‘쉐바(Shewa)’가 존재하지 않으며, 악센트가 주로 어말 바로 앞 음절(Penultimate)에 위치한다는 점, 그리고 히브리어의 주요 음운 법칙 중 하나인 ‘필리피 법칙(Philippi's law)’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통해 사마리아 오경의 문법적 특징과 음운론을 연구했다. Hyun-Joon Choi, “Some Grammatical Features of the Samaritan Pentateuch Hebrew: Comparative Study with the Tiberian Hebrew”,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27 (2010), 206-227.

16 사마리아 오경 본문 상호 비교를 연구 방법론으로 한 논문으로는 김진명,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가? - 맛소라 본문(MT)과 칠십인경(LXX)과 사마리아 오경(SP)의 본문 비교 연구”, 『구약논단』 25권 4호 (2019년 12월), 253-281; 이은우, “할례, 유월절, 만나에 관한 해석학적 논쟁 - 사본 간의 해석학적 차이인가? 편집사의 흔적인가?”, 『구약논단』 31권 4호 (2025년 12월), 269-310이 있다.

식하고, 세계 연구 동향에 발맞추어 학계의 주의를 환기하는 일은 현재 구약 본문 비평계의 중요한 학술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통감하며 본 논문은 국내 연구에서 미진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사마리아 오경 본문 연구를 시도한다. 특별히 오경 전체의 본문 가운데 사본학적으로 신학적 유형의 밀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신명기 32장 1-43절을 단일 연구 범위로 선정한다.¹⁷ 성서 본문 연구에서 일반 산문 본문과 달리 운율과 시적 평행법이 중요한 시문은 필사자들이 자음 본문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의 원초적인 층위(Archaic Layers)를 관찰하기 쉽다.¹⁸ 특히 신명기 32장은 제2성전기 말엽에 유대 사회가 고대 전승을 수용하고 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문의 흐름과 유동성을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이다.¹⁹ 따라서 이 본문을 여러 각도로 교차 대조하는 작업은 단순한 개별 구절의 주석을 넘어, 고대 성서 본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원화되어 발전해 왔는지를 정밀하게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 행위이다.²⁰

2. 사마리아 오경 신명기 32장 분석

본 장에서 다루는 본문 대조 작업은 단순히 사본 전승의 외형적 차

17 본 연구의 본문과 유형 정보는 다음의 책을 사용한다. Carmel McCarthy (ed.), *Biblia Hebraica Quinta, Third Fascicle: Deuteronomy*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7).

18 McCarthy, 윗글, 82*-85*; Kartveit, 윗글 (2009), 315-320.

19 McCarthy, 윗글, 144*-147*; Kartveit, 윗글 (2009), 285-305.

20 McCarthy, 윗글, 146-150; Tov, 윗글 (2012), 246-252; John W. Wevers,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Band III, 2: Deuteronomi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344 이하; John W. Wevers, *Notes on the Greek Text of Deuteronomy* (SCS 39; Atlanta: Scholars Press, 1995), vii-xxiv.

이점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토브(Emanuel Tov)와²¹ 크로포드(Sidnie W. Crawford)가²² 지적하듯 사마리아 오경의 종파적 성격이나 확장적·조화적 성향을 확인하는 것과 본문 안에 보존된 ‘마소라 본문 이전의 고대성’(Pre-Masoretic Antiquity)을 입증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엄격히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후대의 조화 현상이나 종파주의적 특성을 다루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마리아 오경 안에서 마소라 본문보다 더 오래된 전승을 보존하거나 본문사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자음 형태와 전승의 흔적을 추적하여 사마리아 오경의 고대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마리아 오경과 다른 필사본·번역본의 본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맥카시(Carmel McCarthy)가 편집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타』(Biblia Hebraica Quinta, 이하 BHQ)를 사용한다. BHQ 신명기 32장의 비평 장치에는 총 111개의 이형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²³ 여기서 사마리아 오경 본문의 고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마리아 오경이 마소라 본문과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를 살펴본다. 사마리아 오경의 고대성을 평가하면서 칠십인역이나 콤란 사본과의 일치만을 선별하면, 사마리아 오경이 특정 본문 계열에서 직선적으로 파생되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21 Tov, 윗글 (2012), 75-79.

22 Sidnie W. Crawford, *The Text of the Pentateuch: Textual Criticism and the Dead Sea Scrolls* (BZAW 493; Berlin/Boston: De Gruyter, 2022), 69-71, 91-92. 그 또한 토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23 이형 정보를 가운데 대부분은 ‘바브의 유무에 따른 이형’과 문맥의 조화에 따른 수정과 확장, 문법적 수정과 관련한 이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이형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사마리아 오경 연구 분야 가운데 중요한 주제이다. 특별히 바브의 유무와 관련한 연구는 Schorch, 윗글 (2021), 35*-42*; Moshe Florentin, “Some Thoughts About the Evaluation of the Samaritan Reading of the Pentateuch and the Hebrew Dialect Reflected in This Reading”, Jörg Frey 외 (eds.), *Die Samaritaner und die Bibel: Historische und literarische Wechselwirkungen* (Studia Judaica 70; Studia Samaritana 7; Berlin/Boston: De Gruyter, 2012), 1-5; Crawford, 윗글 (2022), 13-28, 69-70, 188-189, 241-243을 참조하라.

이러한 일치는 두 본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직접 수정했다는 의미라기보다, 양자가 분리되기 이전의 공동 대본이나 편집 층을 계승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마리아 오경이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형태지만, 쿰란과 칠십인역, 혹은 둘 가운데 하나와 일치하는 경우 또한 비평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²⁴ 이 비교를 통해 사마리아 오경이 마소라 본문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원전 2-1세기에 유통되었던 다양한 본문 전통이 사마리아 오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⁵ 먼저 사마리아 오경 본문이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는 경우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1) 사마리아 오경=마소라 본문

여기서는 사마리아 오경과 마소라 본문이 일치하는 주요 사례들을 검토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마소라 본문과 다른 사마리아 이형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의 일치 역시 두 전승이 공유한 고대의 본문층을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한다. 이는 사마리아 오경을 마소라 본문에서 벗어난 이형들의 집합으로만 다루지 않고, 두 본문의 차이와 공통점을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다.²⁶ 물론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 본문의 일치가 곧바로 해당 읽기의 고대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읽기가 쿰란 사본이나 칠십인역보다 어렵고 불규칙한 형태라면, 두 본문이 더 오래된 읽기를 함께 보존했을

24 물론 이 밖에도 BHQ는 다른 필사본 증거들도 언급한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필사본과 번역본인 마소라 본문과 쿰란 사본, 칠십인역으로만 상호 비교하며, 다른 필사본들은 필요하다면 본문에서 간단하게만 언급될 것이다.

25 중간기 시대의 다양한 본문 유통과 관련한 내용은 김정훈, “구약성경의 본문 비평”, 「구약논단」 31권 2호 (2025년 6월), 288-294을 참조하라.

26 Crawford, 윗글 (2022), 69-70; Ulrich, 윗글, 384-385.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이차적 수정이라 하더라도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이 동일한 수정을 공유한다면, 그 편집은 두 전승이 분리되기 이전에 이루어졌을 수 있기에 그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다.

(1) 32장 8절

MT	בְּנֵי יִשְׂרָאֵל	이스라엘 자손들
Smr	בְּנֵי יִשְׂרָאֵל	이스라엘 자손들
LXX	υἱὸν θεοῦ	하나님의 자손들
4QDeut ⁱ	בְּנֵי אֱלֹהִים	하나님의 자손들

이 이형은 칠십인역과 4QDeutⁱ가 일치하고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이 일치한다. 외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한 부분을 지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문 내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쿰란과 칠십인역의 읽기가 더 오래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민족들을 나누고 그들의 경계를 정하신 사건을 노래하는데, 역사 속에서 그 수가 계속 변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는 고정된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대 근동에는 일정한 수의 신적 존재들이 각각의 민족을 맡는다는 관념이 존재했는데 이어지는 9절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야곱이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문맥을 고려한다면, 8절은 본래 지극히 높으신 분이 민족들을 신적 존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그의 몫이 되었다는 의미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²⁷ 그렇다면 마

27 Paul Sanders,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OTS 37; Leiden: Brill, 1996), 157–158. 샌더스는 ‘בְּנֵי אֱלֹהִים’이 창세기 6장 2, 4절;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시편 29편 1절; 89편 7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적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한 이

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의 “이스라엘 자손”은 다신론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신학적 수정으로 볼 수 있다. 크로포드 또한 이 읽기를 “다신론의 외관을 피하기 위한 필사자의 의도적인 수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이형이 두 본문이 분리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고대의 이형이라고 지적한다.²⁸ 샌더스 역시 이 수정이 이루어진 시기의 상한을 포로기 이후로, 하한을 유대와 사마리아 공동체가 분리된 하스모니아 시대로 설정한다.²⁹

따라서 32장 8절은 사마리아 오경이 마소라 본문보다 더 오래된 원문을 보존한 사례는 아니다. 하지만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의 동일한 신학적 수정이 중세의 마소라 학자와 사마리아 오경 필사자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자가 동일한 신학적 수정 읽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두 전승이 분리되기 이전에 형성된 공동의 편집층을 계승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2) 신명기 32장 43절(1)

MT	הָרִינֵנוּ גוֹיִם עַמּוֹ	기뻐하라! 그분의 백성과
Smr	הָרִינֵנוּ גוֹיִם עַמּוֹ	기뻐하라! 그분의 백성과

표현을 우가릿 문헌의 bn 'il(m), 곧 “엘의 아들들”과 연결하며, 신명기 32장 8-9절이 각 신적 존재에게 민족과 영역이 분배되고 그 가운데 아굽이 여호와의 몫이 되었다는 고대 서아시아의 관념을 반영한다고 본다.

- 28 Crawford, 윗글 (2022), 139. 크로포드는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신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읽기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정이지만, 두 전승이 분리되기 이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고대의 이형이라고 평가한다.
- 29 Sanders, 윗글, 368, 각주 370. 샌더스는 마소라 본문=사마리아 오경 읽기의 상한선(terminus a quo)을 포로기로, 하한선(terminus ad quem)을 유대와 사마리아 공동체가 분리된 하스모니아 시대, 대략 기원전 135-67년으로 제안한다.

LXX	εὐφράνθητε, οὐρανοί, ἅμα αὐτῷ, καὶ προσκυνήσάτωσαν αὐτῷ ... καὶ τοῖς μισοῦσιν ἀνταποδώσει,	기뻐하라 하늘들이여. 그분의 백성 과. 경배하라 그분께. ... 그리고 미 워하는 자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4QDeut ^a	הַרְנִינוּ שְׁמִים עִמוֹ וְהִשְׁתַּחוּ לֹו כָּל אֱלֹהִים וְלִמְשָׁנָאֵיו 'שָׁלֹם' ...	기뻐하라! 하늘이여. 그분의 백성과. 경배하라! 그분께 온 신들아! ... 그 리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 으실 것이다.

사마리아 오경은 마소라 본문의 지지를 얻고 있다. 칠십인역은 마소라 본문과 4QDeut^a 본문의 혼합형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지만 콤란과 차이를 보이기에 외적인 기준을 따르면 사마리아 오경과 마소라 본문에 힘이 실린다.

내적 문학 구조로 보았을 때, 4QDeut^a의 문맥 구조는 특별히 눈에 띈다. “하늘”과 “온 신들”을 호명하는 이 읽기는 32장 처음에 하늘을 증인으로 부르는 1절과 봉입구(inclusio)를 이루며, 이 본문과 자연스러운 시적 평행을 형성한다. 반면 사마리아 오경은 신적 존재들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하늘”(שְׁמִים/샤마임)이 “백성”(גּוֹיִם/고임)로 대체되었다. 문학적 구성의 완전성을 고려한다면, 쉬운 읽기는 4QDeut^a가 되겠지만, 앞선 8절의 사례와 같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으로 바뀐 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이 8절뿐 아니라 43절에서도 신적 존재들에 대한 언급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후반절에 4QDeut^a에는 “그리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칠십인역에는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으실 것이다.”는 행이 있으나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에는 없다. 샌더스는 이 행이 원래 마소라 본문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지만

4QDeut^a와 칠십인역이 41절의 표현을 가져와 첨가한 이차적 조화일 가능성도 인정한다.³⁰ 샌더스의 견해와 별개로 이 본문이 41절 본문과 조화를 이룬다는 점과 긴 읽기라는 사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의 짧은 본문이 더 앞선 형태일 가능성도 남는다.

결론적으로 43절 첫머리의 “하늘들”과 “민족들”의 이형에서는 4QDeut^a가 앞선 읽기를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후반부의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으실 것이라”는 41절의 표현과 조화시킨 이차적 첨가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첫머리의 이형과 후반부의 이형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만 후반부의 이형이 첨가라 하더라도, 4QDeut^a와 칠십인역이 유사한 긴 읽기를 함께 전한다는 사실은 이 읽기가 후대 사마리아 공동체의 독자적인 수정이 아니라 기원전부터 유통된 오래된 이형임을 보여 준다.

(3) 신명기 32장 43절(2)

MT	וְכַפֵּר	그리고 그분이 속죄하리라.
Smr	וְכַפֵּר	그리고 그분이 속죄하리라.
LXX	καὶ ἐκκαθαρίει κύριος,	그리고 주께서 정결하게 하시리라.
4QDeut ^a	וְכַפֵּר	그리고 그분이 속죄하시리라.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은 본문의 형태가 일치하는 반면 4QDeut^a는 ‘וְכַפֵּר’(브예카페르/그리고 그분이 속죄하시리라)로 읽는다. 마

30 McCarthy, 윗글, 97-98; Sanders, 윗글, 249-252. 샌더스는 4QDeut^a를 마소라=사마리아 오경보다 앞선 읽기로 평가하고,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에서 신적 존재들에 대한 언급이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고 본다. 다만 וְכַפֵּר의 고대성에 대해서는 41절에 의한 이차적 첨가 가능성과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에서의 탈락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며, 후자를 더 선호한다.

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의 형태는 문맥상 미래적 기능을 지닌 ‘바브 연속 완료’ 형태이다. 반면 4QDeut^a는 형태상 ‘바브 연속 미완료형’으로 보이지만 모음이 없으므로 확실히 형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본문 전후의 맥락에서 미완료형의 동사들이 사용되며 본문이 미래 심판을 전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4QDeut^a는 보다 선명한 미래형 표현을 드러내기 위하여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맥카시는 4QDeut^a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현대화’로 지칭하는데 이는 성서 히브리어 내부의 후기 언어 단계에서 고전적 연속법 체계를 덜 사용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뜻한다.³¹ 이처럼 바브 연속 완료를 단순 바브와 미완료형으로 대체해 사용하는 현상은 1QIsa^a에서도 확인된다.³²

칠십인역의 ‘ἐκκαθαρίει’(에크카타리에이/정결하게 할 것이다)는 얼핏 보면 히브리어 대본의 의미를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כִּפֹּר’(킵페르/속죄하시리라)가 ‘ἐκκαθαρίζω’(에크카타리조/정결하게 하다)로 번역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³³ 칠십인역의 번역자는 사마리아 오경 또는 4QDeut^a와 유사한 본문 형태의 대본을 가지고 있었고 번역자 역시

31 McCarthy, 윗글, 154*; Sanders, 윗글, 253-254, 특히 253, 각주 869.

32 이사야 2장 11절에서 마소라 본문의 바브 연속 완료형 ‘וַיִּשָּׁח’은 1QIsa^a(II, 19)에서 바브와 미완료형이 결합된 ‘וַיִּשָּׁחַ’로 전승되지만, 두 형태는 모두 미래의 심판을 나타낸다. 이사야 56장 4절의 마소라 ‘וַיִּכְתֹּר’과 1QIsa^a(XLVI, 15)의 ‘וַיִּבְחֹר’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4QDeut^a의 ‘וַיִּכְפֹּר’은 의미를 과거로 변경한 형태라기보다 마소라 본문의 ‘כִּפֹּר’이 지닌 미래적 기능을 후기의 접두활용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duard Y. Kutscher, *The Language and Linguistic Background of the Isaiah Scroll (1QIsa^a)* (STDJ 6; Leiden: Brill, 1974), 357-358; Martin G. Abegg Jr., “Linguistic Profile of the Isaiah Scrolls”, Eugene Ulrich/Peter W. Flint (eds.), *Qumran Cave 1.II: The Isaiah Scrolls, Part 2: Introductions, Commentary, and Textual Variants* (DJD 32; Oxford: Clarendon Press, 2010), 37-38.

33 Edwin Hatch/Henry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897-1906; repr.,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 432a.

그 본문을 미래적 의미로 새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만으로는 대본이 ‘וכפר’였는지 ‘ויכפר’였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칠십인역이 κύριος(퀴리오스/주)를 첨가하여 생략된 행위자를 명확히 밝히고 있어 히브리어 본문보다는 쉬운 읽기를 지향한다.³⁴

정리하자면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은 미래적 기능을 지닌 고전적인 바브 연속 완료형을 보존하고, 4QDeut^a는 동일한 미래 의미를 후기의 언어 형태로 표현한다. 따라서 사마리아 오경과 마소라 본문이 보존한 형태가 더 오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사마리아 오경이 마소라 본문과 형태가 다른 유형들

(1) 32장 5절(Smr=LXX)

MT	שָׁחַת לוֹ לֹא בָנָיו מוֹמִים	그가 그분께 몯쓸 짓을 하지 않았으나, 그분의 자녀들이여. 그들의 흠 투성이구나. ³⁵
Smr	שָׁחַתוּ לֹא לוֹ בְּנֵי מוֹם	그들이 몯쓸 짓을 했구나. 흠 있는 자녀들은 그분께 있지 않다네.
LXX	ἤμαρτοσαν οὐκ αὐτῷ τέκνα μωμητά,	그들이 몯쓸 짓을 했구나. 흠 있는 자녀들은 그분께 있지 않다네.
Q	X	-

먼저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을 비교해 본다면, 마소라 본문은 주어와 그 대상의 수가 다르며 마소라 본문의 “그분께… 않았으

34 Wevers, 윗글 (2011), 359.

35 사역은 레닌그라드 사본의 악센트 기호와 본문이 나뉜진 기준에 따라 번역했다. 이 본문은 이 밖에도 “그가 그분께 몯쓸 짓을 하였는가? 아니다! 그래도 그분의 자녀들이여. 그들은 흠 투성이구나.”로 번역되기도 한다.

나”(לֹא לוֹ/로 로)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외적인 기준에 따르면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은 단어와 동사의 수가 일치되어 있고 문장 순서가 동일하다. 사마리아 오경의 읽기 ‘שָׁחַתוּ לֹא לוֹ בְּנֵי מֹוֹם’(쉬호투 로 로 브 네 몸/그들이 그분께 몹쓸 짓을 했구나. 흠 있는 자녀들은)은 얼핏 보아도 쉬운 읽기인데, 사마리아 오경의 동사가 뒤에 나오는 ‘자녀들’을 받도록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본문의 이해를 더 쉽게 한다.³⁶ 더불어 마소라 본문이 의미를 새기기가 더 힘들다.

특별히 크로포드의 옥스퍼드 히브리어 성경(OHB) 프로젝트는 이 구절의 본문 상태를 “절망적일 정도로 오염되었다(almost hopelessly corrupt)”고 언급하며 마소라 본문의 훼손을 지적한다.³⁷ 크로포드는 이 구절의 전 반부를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 본문을 섞어 ‘שָׁחַתוּ לֹא לוֹ בְּנֵי’ (사하투 로 로 바나브)로 재구성한다. 그 이유는 시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לֹא חֲכָם’(로 하참/ 지혜롭지 못하다[6절]), ‘לֹא אֱלֹהִי’(로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아니다[17절]), ‘לֹא אֵל’(로 엘/ 나의 하나님) 아니다[21절])과 비교해 ‘לֹא בְּנֵי’가 시의 균형에 맞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본문이 유지된다면, 동사가 복수형이 되는 것이 옳다. 그녀는 마소라 본문에 고착된 단수형 ‘שָׁחַת’은 5절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복수형 동사를 필사자가 본문의 전후 맥락을 고려한 나머지 동사를 단수로 동화(assimilation)시킨 결과거나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기계적인 중차 탈락(haplography)으로 생

36 Sanders, 윗글, 145-148. 샌더스는 사마리아 오경 본문이 마소라 본문의 읽기 힘든 문법을 피하려고 후대 서기관들이 임의로 고쳐 쓴 결과물(평이화)이라 말한다. 샌더스는 사마리아 오경의 필사자가 본문을 쉽게 하기 위해 본문을 고치면서 운율을 깨뜨렸다고 주장하는데 5절의 ‘מֹוֹם’(무맘)과 앞선 4절의 ‘תָּמִים’(타뎀, 완전함)의 대칭 구조를 그 예시로 든다. 결과적으로 서기관들의 손을 타지 않고 고대 노랫말의 대조미를 간직한 마소라 본문이 훨씬 더 오래된 본문 형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의견도 고려할 만하다.

37 Sidnie W. Crawford 외, “Sample Editions of the Oxford Hebrew Bible: Deuteronomy 32:1-9, 1 Kings 11:1-8, and Jeremiah 27:1-10 (34 G)”, *Vetus Testamentum* 58 (2008), 355.

긴 필사 오류로 보았다.^{38 39} 더불어 사마리아 오경의 뒤바뀐 어순은 자음 변위(metathesis)의 결과로 생각한다.⁴⁰

맥카시는 마소라 본문의 자음 본문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간결한 읽기로 평가하여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לֹא לוֹ' (로로/그분께...않았으나) 위에 덧씌워진 마소라 악센트가 이스라엘의 자녀 자격 박탈이라는 충격적 진술을 피하려는 신학적 동기에서 비롯된 이차적 서기관 개입임을 논증한다. 이 자음 본문을 악센트 없이 자연스럽게 읽으면 'לֹא לוֹ' (로 바나브/그분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소지가 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유한 지위를 스스로 박탈당했다는 선언이 된다. 따라서 맥카시는 마소라 본문은 자음 본문을 그대로 따르되, 악센트는 'לֹא לוֹ'를 함께 읽도록 묶어서 부정어가 '자녀들'이 아니라 앞선 동사를 수식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이 지닌 자녀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의 어순 전도는 같은 신학적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이차적 시도로 자리매김된다.⁴¹

신명기 32장 5절 종결부의 'מוֹמָם'(무뎡/흠 투성이로구나)에 대하여 크로포드와 맥카시는 모두 이를 해설적 첨가(gloss)로 보지만, 그 처리 방식은 다르다. 크로포드는 이를 오염된 본문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입된 첨가로 판단하여 비평 본문에서 삭제한다. 반면 맥카시 역시 'מוֹמָם'

38 윗글, 356.

39 토브는 본문 비평을 고정된 규칙에 얽매일 수 없는 '일종의 예술'(art)이자 '상식'(common sense)의 영역으로 정의한다. 그는 '어려운 읽기'(lectio difficilior) 규정에 대해, 필사자의 단순한 오류가 오히려 어려운 읽기를 만들어 내는 일이 잦아 어떤 읽기가 오류인지 합의하기 어려우므로 이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본문 평가는 문맥에 가장 부합하는 읽기를 고르는 주관적 판단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토브의 원칙은 크로포드 주장의 근거가 된다. Tov, 윗글 (2012), 275-276, 280-281.

40 Crawford 외, 윗글 (2008), 356.

41 McCarthy, 윗글, 141-142*.

을 첨가로 보면서도, 매우 이른 단계에 본문으로 유입되어 모든 주요 전승에 반영되었으므로 현존 전승의 가장 이른 복원 가능한 본문에는 보존한다.⁴² 따라서 두 견해의 차이는 ‘מוֹמִם’의 첨가적 성격 자체보다 비평 본문에서 이를 삭제할 것인지, 초기 전승에 이미 정착한 요소로 보존할 것인지에 있다. 한편, 사마리아 오경의 본문은 마소라 본문이 겪은 본문 이해의 어려움을 ‘לא לו’로 고치고 동사를 복수형으로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더불어 해석이 까다로운 ‘בְּנֵי מוֹמִם’(바나브 무뎌/그분의 자녀들이여. 그들의 흠 투성이구나)을 해석이 용이한 연계형 ‘בְּנֵי מוֹם’(브네 모/흠 있는 자녀들은)으로 본문을 수정했다.⁴³

결론적으로 크로포드의 의견은 많은 가정을 수용해야 하고 고정된 본문을 고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 크로포드의 수정 본문을 따르는 다른 사본의 증거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반면 맥카시는 ‘מוֹמִם’을 해설적 첨가로 판단하면서도, 그것이 매우 이른 단계에 본문으로 유입되어 모든 주요 전승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마리아 오경의 문장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다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이 본문 형태가 같다는 점이다. 사마리아 오경의 본문 형태가 마소라 본문보다 후대라 하더라도 칠십인역 번역이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마리아 오경의 수정 본문도 기원전 2-1세기의 근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42 Crawford 외, 윗글 (2008), 355-356; McCarthy, 윗글, 140*.

43 McCarthy, 윗글, 140*.

(2) 32장 15절(Smr=LXX=4QPhyl¹)

MT	וַיִּשְׂמַן	그리고 그가 살찌었다네.
Smr	יֹאכָבֵל יַעֲקֹב וַיִּשְׂבַּע יִשְׁמָן	야곱이 먹고 만족하여 살찌도다.
LXX	καὶ ἔφαγεν Ἰακώβ καὶ ἐνεπλήσθη,	또, 야곱이 먹고 만족했다네.
4QPhyl ¹	וַיִּשְׂבַּע אַכְּבֵּל יַעֲקֹב[...]	야곱이[...] 만족했다네.

본문 내적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는 마소라 본문이 짧은 본문이라 더 오래된 형태를 보존했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BHQ 비평 장치가 보여 주듯이, 이는 사마리아 오경에 발견되는 인접한 두 동사 ‘וַיִּשְׂבַּע’ (바이쉬바/만족하여)과 ‘וַיִּשְׂמַן’ (이쉬만/살찌도다)의 첫 자음들의 유사성(Homoioarkton) 때문에 발생한 중자 탈락(haplography)일 가능성이 있다.⁴⁴ 마소라 본문은 ‘וַיִּשְׂמַן’의 앞부분이 탈락하면서 시의 균형(2+2+3)도 사라지게 되었다. 사마리아 오경의 본문은 외적 기준으로 칠십인역, 4QPhyl¹의 지지를 얻는다는 점에서도 맥카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더불어 이 본문 찬양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야곱’과 ‘여수론’(יִשְׁרָאֵל)은 히브리어 시학에서 쌍을 이루어 사용된다(사 44: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마소라 본문에서 야곱이 없는 경우는 히브리 시 작법의 관점에서도 어색하다.

칠십인역은 ‘καὶ ἐνεπλήσθη.’ (카이 에네플레스테/만족했다네) 다음에 “살찌도다”(וַיִּשְׂמַן/이쉬만)에 해당하는 번역어가 없다. 여기서 짧은 읽기는 물론 칠십인역이지만, 시의 구조상 이 부분이 없는 것은 본문의 균형에 맞지 않다. 아마도 이 부분은 15절의 전상반절의 완료형 동사

44 자음의 유사성으로 인한 중자 탈락의 사례는 다음의 책에서 확인하라. Tov, 윗글 (2012), 221-222.

‘שָׁמַנְתָּ’ (사마느타/네가 살찼다)가 ‘יִשְׁמַן’과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칠십인역 번역자가 의미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략했거나, 유사한 의미의 동사를 무의식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⁴⁵ 결론적으로 신명기 32장 15절은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독립적인 필사 사고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외적 증거와 시적 균형을 함께 고려할 때, 사마리아 오경이 초기의 본문 형태를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다.

(3) 32장 35절(Smr=LXX)

MT	לִי נָקָם	복수는 나의 것!
Smr	לְיוֹם נָקָם	복수의 날에
LXX	τὴν γῆν τοῦ λαοῦ αὐτοῦ,	복수의 날에
Q	X	X

짧은 읽기는 마소라 본문이다. 마소라 본문 ‘וְשָׁלַם לְעֵת תְּמוּתָּם רָגֵלָם’ (리 나감 브쉴렘 르에트 타무트 라글람/복수와 보응은 나의 것!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 [그러하리라])과 사마리아 오경 ‘לְיוֹם נָקָם וְשָׁלַם לְעֵת תְּמוּתָּם רָגֵלָם’ (르욀 나감 브쉴렘 르에트 타무트 라글람/복수와 보응의 날에,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그러하리라])는 모두 본문의 의미를 새기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32장 35절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칠 ‘그날’에 관해 노래하는 본문이기에 ‘복수의 날’을 노래하는 35절의 후반절 ‘כִּי קָרוֹב יוֹם אִירָם’ (키 카로브 욀 에담/실로 그들의 불행의 날이 가깝고)가 시간과 날을 언급한 사마리아 오경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쉬운 읽기를 가

45 McCarthy, 윗글, 144*.

려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마소라 본문의 ‘פָּקֹדֵי לִי’ (리 나감/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표현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복수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맥락 가운데 종종 찾아볼 수 있다(잠 6:34; 사 34:8; 61:2; 63:4). 따라서 마소라 본문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마소라 본문의 형태가 구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으니 더 어려운 읽기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마소라 본문이 본문 훼손으로 인한 필사 오류라면 ‘פָּקֹדֵי לִי’ (르옴/날에)에서 연속된 ‘바브’와 ‘요드’로 인한 자음의 혼동에 따른 중자 탈락을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1~2세기에는 이 두 자음의 생김새가 같았기에 종종 필사 오류의 대상이 되었다.⁴⁶ 불가타와 페시타, 타르굼뿐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의 인용이 마소라 본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마소라 본문의 고대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외적 증거이다.⁴⁷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의 “복수의 날”은 문맥과 성서의 일반적인 용례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마소라 본문의 어려운 표현을 평이하게 만든 이차적 수정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외적 증거와 어려운 읽기를 우선하는 내적 기준을 함께 고려할 때, 마소라 본문이 앞선 형태를 보존했을 가능성이 더

46 기원전 1-2세기의 ‘요드’와 ‘바브’로 인하여 생긴 필사 오류와 관련한 내용은 Tov, 윗글 (2012), 228-229을 참조하라.

47 흥미롭게도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이 이 부분을 인용하는데 그리스어 형태가 마소라 본문과 같다. 던(James D. G. Dunn)은 바울이 마소라 본문을 족석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당대 디아스포라 유대인/기독교 공동체 내에 칠십인역 표준판과는 구분되면서 마소라 본문과 타르굼의 형태를 긴밀하게 반영하고 있던 ‘별도의 그리스어 사본 전승’이 이미 존재했고,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가 그 전승을 공유하여 인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레인(William L. Lane) 역시, 이 인용구가 마소라 본문의 자음 구조를 갖춘 독자적인 ‘변이형 그리스어 본문 전승’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이 주장들과 관련해서는 James D. G. Dunn, *Romans 9-16* (WBC 38B; Dallas: Word Books, 1988), 753-755; William L. Lane, *Hebrews 9-13* (WBC 47B; Dallas: Word Books, 1991), 295-296을 참조하라.

높다. 다만 칠십인역이 사마리아 오경의 읽기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복수의 날” 역시 후대 사마리아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만든 읽기가 아니라 적어도 기원전부터 전승된 오래된 이형으로 평가해야 한다.

(4) 32장 43절(Smr=LXX=4QDeut^a)

MT	אֲדָמָתוֹ עֵמוֹ	그분의 땅, 그분의 백성
Smr	אֲדָמָת עֵמוֹ	그분 백성의 땅
LXX	τὴν γῆν τοῦ λαοῦ αὐτοῦ,	그분 백성의 땅
4QDeut ^a	אֲדָמָת עֵמוֹ	그분 백성의 땅

사마리아 오경은 칠십인역, 4QDeut^a뿐 아니라 불가타의 지지도 얻는다. 페시타와 타르굼은 마소라 본문과 형태가 같지만, 본문 사이에 접속사를 삽입한 형태를 보인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본문을 제외한 다른 필사본의 이형이 마소라 본문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헥사플라 전통의 그리스어 번역뿐이다(εβρ'). 타르굼과 페시타가 접속사를 추가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갖고 있던 대본이 마소라 본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개의 병행하는 명사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삽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려운 읽기는 마소라 본문이다. 특별히 마소라 본문의 형태와 관련해서 샌더스는 흥미로운 진술을 한다. 마소라 본문의 형태가 어려운 읽기이지만, 사실상의 의미는 사마리아 오경과 같다는 것이다. 샌더스는 ‘אֲדָמָתוֹ’에 붙은 3인칭 대명접미어가 고대 히브리어 시문에서 연계형 명사 끝에 붙던 무의미한 접미사(meaningless affix)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창 1:24 חִיתִּים־אֶרֶץ/하여토 에레츠/땅의 생물들). 따라서 후대의 필사자들과 번역자들은 무의미한 접미사가 붙은 고대의 연계형 구조를 알고 있었지만, 문법이 변하자 독자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화된 수정(modernization or adaptation)을 가했고 마소라 본문은 고대의 자음을 유지하되 모음을 붙이는 과정에서 두 개의 독립된 목적어로 모음을 처리한 것이 고착화되어 지금 마소라 본문의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샌더스의 주장에 따르면 본문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의미는 같다.⁴⁸

더불어 이 이형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마소라 본문을 신학적 수정의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신명기 32장 43절은 전체가 칠십인역과 마소라 본문 사이의 신학적 대립으로 유명한 본문이다. 칠십인역에는 “기뻐하라 하늘이여! 그분과 함께! 경배하라 그분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여!”(εὐφράνθητε, οὐρανοί, ἅμα αὐτῷ, καὶ προσκυνήσατωσαν αὐτῷ πάντες υἱοὶ θεοῦ/에우프란테테 우라노이 아마 아우토 카이 프로스퀴네사토산 아우토 판테스 휘오이 테우)라는 긴 문구가 더 전해진다. 학자들은 본래 이 부분이 히브리어 본문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를 유일신 신앙에 위배되는 다신교적 묘사로 받아들여 해당 문구를 삭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⁴⁹ 그렇다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백성의 땅’이라 일컬을 때 발생하는 신학적 문제를 이 본문에서 발견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만약 그랬다면 한 본문 안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신학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간에 바브를 써서 오해의 소지를 방지했을 가능성도 있다.⁵⁰ 이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다면, 사마리아 오경의 본문 형태는 마소라 본문 형태보다 더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48 Sanders, 윗글, 254.

49 Tov, 윗글 (2012), 249-250.

50 완곡어법(euphemism), 반신론적 혹은 신학적 개정 등 신학적 이유에서 발생한 본문을 의도적으로 고치는 경향에 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라. Tov, 윗글 (2012), 57-58, 242-256.

3. 맺음말

사마리아 오경은 오랫동안 마소라 본문을 인위적으로 수정한 종파적 본문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쿰란에서 전-사마리아 본문이 발견되면서, 사마리아 오경에도 제2성전기에 유통되던 다양한 본문 가운데 오래된 본문 형태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신명기 32장의 주요 이형을 마소라 본문, 쿰란 사본, 칠십인역과 비교하여 사마리아 오경 본문의 고대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이 일치하는 사례들은 두 전승의 배후에 존재했던 공동 본문층을 보여 준다. 32장 8절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쿰란과 오래된 칠십인역이 전하는 신적 존재들의 읽기보다 이차적인 신학적 수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이 동일한 수정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이 읽기가 두 전승이 분리되기 이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43절에서도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은 “민족들”(גוֹיִם/고임)로 읽는 반면 4QDeut^a는 “하늘들”(שָׁמַיִם/사마임)로 읽고, 칠십인역은 두 읽기를 모두 포함한다. 쿰란의 읽기는 1절과 수미상관을 이루며 자연스러운 시적 평행을 형성하므로 앞선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례도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이 신적 존재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공동의 편집층을 계승했음을 보여 준다.

반면 43절의 종결 동사 ‘וּכְפַר’ (브킵페르/그리고 그분이 속죄하리라)는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이 쿰란보다 더 고전적인 형태를 함께 보존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QDeut^a의 ‘וּכְפַר’ (브예캅페르/그리고 그분이 속죄하시리라)는 앞에 나오는 접두형 동사들과 형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규칙화한 읽기로 보이지만, 마소라 본문과 사마리아 오경의 ‘וּכְפַר’는 문법적으로 더 불규칙하고 어려운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두 본문의

일치는 이 동사에만 한정되며, 이어지는 명사구에서는 사마리아 오경이 쿰란 및 칠십인역과 가까운 형태를 전한다. 이는 하나의 구절 안에서 서로 다른 본문 전통의 특징이 교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마소라 본문과 다른 사마리아 오경의 이형에서도 동일한 복합성이 확인된다. 32장 5절에서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의 읽기는 마소라 본문의 어려운 문장 구조를 평이하게 수정한 이차적 읽기로 판단된다. 그러나 칠십인역의 지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이 읽기 또한 기원전 수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수정 전통에 속한다. 15절에서는 사마리아 오경이 칠십인역과 4QPhyl¹의 부분적인 지지를 받으며 시적 균형과 의미의 연속성을 가장 온전하게 보존한다. 35절의 “복수의 날”은 문맥과 성서의 용례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만, 마소라 본문의 “복수는 나의 것”이 여러 고대 역본과 신약의 인용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점에서 마소라 본문이 앞선 형태를 보존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칠십인역이 사마리아 오경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복수의 날” 역시 기원전부터 전승된 오래된 이형임을 보여 준다. 43절의 ‘אֲדָמַת עֵמֹר’(아드마트 임모/그분 백성의 땅)도 쿰란과 칠십인역의 지지를 얻지만, 마소라 본문이 고대 히브리 시문의 어려운 연계 구조를 보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리하자면 사마리아 오경의 본문적 가치는 모든 읽기가 마소라 본문보다 오래되었다는 데 있지 않다. 사마리아 오경에는 마소라 본문과 공유하는 오래된 편집층, 쿰란 및 칠십인역에 보존된 고대의 읽기가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읽기가 더 오래된 본문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 이형의 기원이 제2성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것은 후기 사마리아 공동체의 독자적인 수정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존재했던 본문 전승의 다양성을 증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마리아 오경은 마소라 본문의 주변에 놓인 부차적인 자료가 아니라 오경의 형

성과 전승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반드시 검토해야 할 독립적인 본문 증거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신명기 32장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BHQ의 이형 가운데 사마리아 오경의 고대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을 선별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여기서 확인된 특징을 사마리아 오경 전체의 성격으로 곧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쿰란 사본이 단편적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과 칠십인역의 읽기만으로 그 배후의 히브리어 대본을 정확히 복원하기 어렵다는 점도 본문 판단을 제한한다. 또한 어려운 읽기나 짧은 읽기를 우선하는 일반적인 비평 원칙만으로 신학적 수정, 문학적 구성, 필사 오류와 언어적 현대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판단은 확정된 원문의 제시라기보다 현존하는 증거를 바탕으로 각 읽기의 상대적인 개연성을 평가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 범위를 신명기 전체로 확대하여 사마리아 오경의 이형을 철자, 문법, 조화적 확장, 신학적 수정과 본문 탈락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4QpaleoExod^m과 4QNum^b를 비롯한 전-사마리아 사본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신명기에서 확인된 현상이 오경 전체의 본문 역사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자음 본문의 비교에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 낭독 전통에 보존된 모음, 음운과 문법적 특징을 마소라 전통 및 쿰란 히브리어와 대조한다면, 사마리아 오경 안에 중첩된 시대별 전승층을 더욱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51 2018년 레위기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창세기 사마리아 오경 비평 편집본이 쇼르히의 노력으로 출간되었지만, 그 외의 비평 편집본의 출간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이는 앞으로 다른 오경 본문의 연구와 출간이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동인이다. Stefan Schorch (ed.), *The Samaritan Pentateuch: A Critical Editio Maior, Volume 3: Leviticus* (Berlin/Boston: De Gruyter, 2018); Schorch, 윗글 (2021).

결국 사마리아 오경 연구의 핵심은 어느 하나의 본문이 모든 지점에서 순수한 원문을 보존했는지를 가리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른 본문 증거가 어느 지점에서 읽기를 공유하고 갈라지며, 그 차이가 어떠한 역사적·신학적·언어적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마리아 오경은 제2성전기 성서 본문의 유동성과 복수성을 증언하는 중요한 본문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국내 구약학계의 본문 비평 연구를 넓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⁵²

참고문헌

- 김정훈, “구약성경의 본문 비평”, 『구약논단』 31권 2호 (2025년 6월), 281-322.
- 김진명,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인가? - 맞소리 본문(MT)과 칠십인경(LXX)과 사마리아 오경(SP)의 본문 비교 연구”, 『구약논단』 25권 4호 (2019년 12월), 253-281.
- 이은우, “할례, 유월절, 만나에 관한 해석학적 논쟁 - 사본 간의 해석학적 차이인가? 편집사의 흔적인가?”, 『구약논단』 31권 4호 (2025년 12월), 269-310.
- Abegg, Martin G., Jr., “Linguistic Profile of the Isaiah Scrolls”, Eugene Ulrich/Peter W. Flint (eds.), *Qumran Cave 1.II: The Isaiah Scrolls, Part 2: Introductions, Commentary, and Textual Variants* (DJD 32; Oxford: Clarendon Press, 2010), 25-41.
- Anderson, Robert T./Terry Giles, *The Samaritan Pentateuch: An Introduction to Its Origin, History, and Significance for Biblical Studies* (RBS 72;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2).
- Choi, Hyun-Joon, “Some Grammatical Features of the Samaritan Pentateuch Hebrew: Comparative Study with the Tiberian Hebrew”,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27 (2010), 206-227.

52 OpenAI, Codex (Windows 데스크톱 앱, 2026.3.4.), [대형언어모델(LLM)], <https://openai.com/codex/> (2026.7.23.). 논문의 영문초록 번역 초안 작성, 논문 교정,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 점검에 활용하였음. 최종 문안과 서지정보는 저자가 원자료 및 『구약논단』 투고 규정과 대조하여 검증하고 수정하였음.

- Crawford, Sidnie White, *The Text of the Pentateuch: Textual Criticism and the Dead Sea Scrolls* (BZAW 493; Berlin/Boston: De Gruyter, 2022).
- Crawford, Sidnie White 외, "Sample Editions of the Oxford Hebrew Bible: Deuteronomy 32:1-9, 1 Kings 11:1-8, and Jeremiah 27:1-10 (34 G)", *Vetus Testamentum* 58 (2008), 352-366.
- Dunn, James D. G., *Romans 9-16* (WBC 38B; Dallas: Word Books, 1988).
- Florentin, Moshe, "Some Thoughts About the Evaluation of the Samaritan Reading of the Pentateuch and the Hebrew Dialect Reflected in This Reading", Jörg Frey 외 (eds.), *Die Samaritaner und die Bibel: Historische und literarische Wechselwirkungen* (Studia Judaica 70; Studia Samaritana 7; Berlin/Boston: De Gruyter, 2012), 1-5.
- Gesenius, Wilhelm, *De Pentateuchi Samaritani Origine, Indole et Auctoritate: Commentatio Philologico-Critica* (Halae: Libraria Rengeriana, 1815).
- Hatch, Edwin/Henry A. Redpath,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and the Other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897-1906; repr., Grand Rapids: Baker Books, 1991).
- Hjelm, Ingrid, *The Samaritans and Early Judaism: A Literary Analysis* (JSOTSup 30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 "Samaritans: History and Tradition in Relationship to Jews, Christians and Muslims", József Zsengellér (ed.), *Samaria, Samaritans, Samaritans: Studies on Bible, History and Linguistics* (Studia Judaica 66; Studia Samaritana 6; Berlin/Boston: De Gruyter, 2011), 173-175.
- Jastram, Nathan, "A Comparison of Two 'Proto-Samaritan' Texts from Qumran: 4QpaleoExod^m and 4QNum^b", *Dead Sea Discoveries* 5/3 (1998), 264-289.
- Kartveit, Magnar, *The Origin of the Samaritans* (VTSup 128; Leiden/Boston: Brill, 2009).
- . "Josephus on the Samaritans: His Tendenz and Purpose", József Zsengellér (ed.), *Samaria, Samaritans, Samaritans: Studies on Bible, History and Linguistics* (Studia Judaica 66; Studia Samaritana 6; Berlin/Boston: De Gruyter, 2011), 109-119.
- Knoppers, Gary N., *Jews and Samaritans: The Origins and History of Their Early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Kutscher, E. Y., *The Language and Linguistic Background of the Isaiah Scroll (1QIsa^a)* (STDJ 6; Leiden: Brill, 1974).

- Lane, William L., *Hebrews 9-13* (WBC 47B; Dallas: Word Books, 1991).
- Langlois, Michaël (ed.),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Dead Sea Scrolls* (CBET 94; Leuven: Peeters, 2019).
- McCarthy, Carmel (ed.), *Biblia Hebraica Quinta, Third Fascicle: Deuteronomy*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7).
- OpenAI, Codex (Windows 데스크톱 앱, 2026.3.4.), [대형언어모델(LLM)], <https://openai.com/codex/>.
- Purvis, James D.,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Origin of the Samaritan Sect* (HSM 2;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Sanders, Paul, *The Provenance of Deuteronomy* 32 (OTS 37; Leiden: Brill, 1996).
- Schorch, Stefan, "The Significance of the Samaritan Oral Tradition for the Textual History of the Pentateuch", Vittorio Morabito 외 (eds.), *Samaritan Researches V* (Studies in Judaica 10; Sydney: Mandelbaum Publishing, 2000), 1.03-1.17.
- _____. "The Samaritan Version of Deuteronomy and the Origin of Deuteronomy", József Zsengellér (ed.), *Samaria, Samaritans, Samaritans: Studies on Bible, History and Linguistics* (Studia Judaica 66; Studia Samaritana 6; Berlin/Boston: De Gruyter, 2011), 23-37.
- _____. (ed.), *The Samaritan Pentateuch: A Critical Editio Maior, Volume 3: Leviticus* (Berlin/Boston: De Gruyter, 2018).
- _____. (ed.), *The Samaritan Pentateuch: A Critical Editio Maior, Volume 1: Genesis* (Berlin/Boston: De Gruyter, 2021).
- Skehan, Patrick W., "Exodus in the Samaritan Recension from Qumra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74 (1955), 182-187.
- Tov, Emanuel, "Proto-Samaritan Texts and the Samaritan Pentateuch", Allan D. Crown (ed.), *The Samaritans* (Tübingen: Mohr Siebeck, 1989), 397-407.
- _____.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3rd ed., rev. and en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Ulrich, Eugene C.,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Origins of the Bible* (Grand Rapids: Eerdmans, 1999).
- Wevers, John William, *Notes on the Greek Text of Deuteronomy* (SCS 39; Atlanta: Scholars Press, 1995).
- _____.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Band III,2: Deuteronomi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Zahn, Molly M., *Genres of Rewriting in Second Temple Judaism: Scribal Composition and*

Transmi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검색어

사마리아 오경, 신명기 32장, 본문 비평, 전-사마리아 본문, 쿨란 사본, 칠십인역

[ABSTRACT]

**A Text-Critical Study of Major Variants in
Deuteronomy 32 of the Samaritan Pentateuch:
An Evaluation of Their Antiquity through Comparison
with the Masoretic Text, the Qumran Manuscripts,
and the Septuagint**

Sung-Hyun Park

Woori Biblical Institute

This study reexamines the traditional assessment of the Samaritan Pentateuch as merely a sectarian recension of the Masoretic Text and seeks to demonstrate the antiquity and transmission-historical value of the text preserved in the Samaritan Pentateuch by analyzing major textual variants in Deuteronomy 32. To this end, the Masoretic Text, the Samaritan Pentateuch, the Qumran manuscripts, and the Septuagint were compared on the basis of the textual variants presented in Biblia Hebraica Quinta (BHQ).

The analysis indicates that some readings in verses 8 and 43, in which the Masoretic Text and the Samaritan Pentateuch agree, reflect a shared textual stratum formed before the two traditions diverged. The verbal form in verse 43 may be regarded as an instance in which these two traditions preserve a more classical form with a future function than that found at Qumran, whereas 4QDeut^a appears to regularize it into a more common expression characteristic of later usage. Among the readings in which the Samaritan Pentateuch differs from the Masoretic Text, the reading in

www.kci.go.kr

verse 5 appears to be a secondary revision intended to simplify a difficult sentence, while the reading in verse 15 is more likely to preserve an earlier form. In verse 35, the Masoretic reading is more likely to preserve the earlier form because it retains the more difficult expression and is supported by several ancient versions and New Testament quotations. Nevertheless, the agreement between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Septuagint indicates that the reading “the day of vengeance” is also an ancient variant that had already circulated in the pre-Christian period. The variants in verse 43 show that the Samaritan Pentateuch transmits a form closely related to the Qumran evidence and the Septuagint, while also leaving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 Masoretic Text preserves a difficult syntactic structure characteristic of ancient Hebrew poetry.

The Samaritan Pentateuch thus contains overlapping textual layers, including an ancient shared editorial stratum, early textual variants, and readings produced through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The antiquity of a particular reading, therefore, cannot be directly equated with its originality. In this respect, the Samaritan Pentateuch should not be regarded as merely secondary evidence peripheral to the Masoretic Text, but as an independent textual witness that must be considered in reconstructing the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the Pentateuch.

key words

Samaritan Pentateuch, Deuteronomy 32, textual criticism, pre-Samaritan text, Qumran manuscripts, Septuagint

투고일 : 2026년 7월 31일

심사일 : 2026년 8월 15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8월 18일

www.kci.go.kr